



나의 고양은 '발자취'이다

66

고양시는 우리 가족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99



고양시에서 자라고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지성입니다. 대범한 공모전 포스터를 통해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을 진행할 시민 사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터라 응모영상 지원 시 저의 유쾌하고 밝은 모습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민 사회자로 선정된 후에는 고양시 관계자들의 세심한 가이드 덕분에 꼼꼼히 기념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윤선 시민 사회자와 함께 기념식 1부 진행을 맡았는데요. 오프닝 멘트로 '고양특례시'를 크게 외쳤던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민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고

양특례시를 가장 먼저 외친 셈이었죠. 고양시가 앞으로 써나갈 역사에 작은 기록을 남긴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기념식이 진행되는 내내 이어진 고양시민의 격려와 박수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과 다시 찾은 일산호수공원에서 저를 알아봐 주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재밌는 진행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는데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저의 꿈은 고양시의 '송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송해 선생님처럼 친근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고양시민과 함께 오래오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고양은 '햇살'이다

66

유년시절, 햇살이 나뭇잎에 반사됐던
예쁜 모습이 선명하게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고양은 언제나 저에게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99



저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로 약 1년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루고픈 진짜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교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엔터테이너를 향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다 대범한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됐고 고민 없이 참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고양시의 특별한 기념식에 시민 사회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제가 꿈꾸는 모습과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기념식 당일 정말 많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를 맡은 저를 보기 위해 제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해줬는데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 왔다는 아이들의 해맑은 이야기를 들으며 몽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큰 무대를 진행한 것이 긴장도 됐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리포터 등 다방면의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양아람누리 무대에 올라 꿈을 이룬 제 모습을 고양시민과 제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아 고양시 홍보대사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준 자양분이 됐습니다. 나날이 꿈꾸고 나날이 성장하는 박윤선이 되겠습니다.